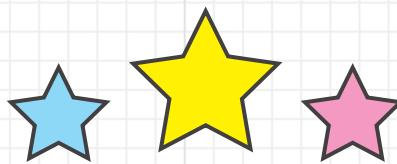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60-01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교과서 모델



장경훈 최은경 이상근 이우철
전세란 신창훈 강한아 이태환



장경훈 최은경 이상근 이우철
전세란 신창훈 강한아 이태환



C O N T E N T S



1 초등학교 3~4학년

- ① 서로를 존중해요 6
- ②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20
- ③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34

2 초등학교 5~6학년

- 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52
- ②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66
- ③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80



초등학교 3~4학년

1

- ① 서로를 존중해요
- ②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 ③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서로를 존중해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생김새, 성별, 성격, 나이, 생각 등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에 따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편 우리는 모두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다르면서 같은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해 봅시다.

무엇을 배울까요?

1-1

소중한 나

- 나는 소중해
- 내가 가진 권리

1-2

소중한 우리의 권리

- 모두 함께 한 약속 : 유엔아동권리협약
-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1-3

권리의 친구, 책임

- 나만 누리는 권리?
- 모두 함께 누리는 권리

1-4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 같은 상황, 다른 생각
-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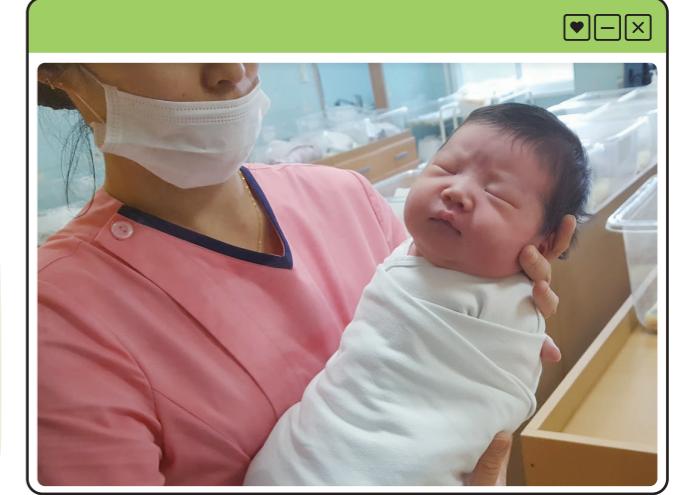
서로 존중하는 우리 반

-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 모두가 행복한 우리 반을 위해



생각해 볼까요?

어떤 장면인가요?



위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워 볼까요?

-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 봅시다.
- 우리가 가진 권리를 알고 나의 생활과 연결 지어 생각해 봅시다.
-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떠한 조건 없이도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가. 나는 소중해

「민수의 고민」을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3학년인 민수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방과후학교 수업부터 시작해 여러 학원에 가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5학년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며 놀거나 쉴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민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모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대부분 근처 편의점에서 사 먹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잠들기 전까지 학교와 학원의 숙제, 그리고 부모님께서 내어주신 과제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미래에 행복 하려면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지만 밤늦게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부모님을 보면 선뜻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민수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지금 민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수는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나. 내가 가진 권리

민수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구들과 의논해 봅시다.

보기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

충분히 놀고 쉴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신만의 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식사

내 생각과 의견이
존중받을 기회

최신 스마트폰과 게임기

민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위〈보기〉에서 골라 ○ 표시해 봅시다.

〈보기〉 중 ○로 표시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기〉 중 ○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민수와 부모님이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 즉 내가 가진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표현해 봅시다.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놀고 쉴 권리가 있어요.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어린이 권리란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마땅히 존중받고 누려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평소 생활을 돌아보며 내가 충분히 존중받고 누리고 있는 권리와 그렇지 못한 권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소중한 우리의 권리

'어린이 권리'는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96개의 나라가 모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가. 모두 함께 한 약속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와 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한 54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발달의 권리

얼마든지 배우고 충분히 쉬고 즐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권리

차별과 폭력, 심한 노동 등 위험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여러분은 위의 4가지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나.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다음 네 친구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연우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누구와 놀아야 할지 전부 부모님이 결정해. 부모님은 내가 아직 어리다며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태경

내 짹 민희는 짹활동을 할 때마다 짹증을 내. 내가 남자라서 이야기하기가 싫대.



진솔

학교 운동장에 있던 축구 골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대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짓고 있어. 무엇보다 우리 생각을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



타냐

우리 부모님은 너무 바쁘셔. 난 집에서 동생과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 며칠 전 동생이 많이 아팠는데 병원도 못 데려가고 너무 힘들었어.



위의 네 친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찾아 연결해 봅시다.

생존의 권리

•



연우



태경

보호의 권리

•

•



진솔



타냐

참여의 권리

•



위의 네 친구의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내가 선택한 친구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되기 위해 서는 누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아래 빈칸에 써 봅시다.

내가 선택한 친구 :

누가	필요한 노력
○○ 자신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세계인 모두 함께 약속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지금 우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는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내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 한지 알아 봅시다.

가. 나만 누리는 권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모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모둠이 시끌벅적합니다. 민주와 창수가 모둠 활동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며 계속 장난쳤던 것입니다. 참다못한 희진이가 그 둘을 다그쳤습니다.
“애들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다른 이야기 그만하고 같이 하자.”
그 말을 들은 창수가 희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건 다 했는데? 너희가 마무리해. 그리고 자유롭게 말하고 놀 권리! 모르니?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나의 교실 생활을 떠올리며 위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민주와 창수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희진이라면 창수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지 써 봅시다.

나. 모두 함께 누리는 권리

내가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 to 존중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의 책임
가정	나는 집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래층에 피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놀아요.
학교	나는 친구들에게 놀림 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 밖의 장소	나는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권리를 읽고 그에 따른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여 써 봅시다.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책임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모든 사람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가 다를 때, 서로 간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같은 상황, 다른 생각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을 읽어 봅시다.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게 쉬고 놀 권리 위해 점심시간을 80분으로 늘렸습니다. 점심시간이 길어지자 운동장에서는 피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1학년 어린이가 4학년 학생이 던진 피구공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하던 피구를 금지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점심시간 피구 금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살펴 봅시다.

입장 1

길어진 점심시간으로 인해 1~2학년 하교 시간이 3~6학년 점심시간과 겹치고 하교하는 길이 따로 있지 않아서 위험한 건 사실이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해. 저학년의 안전을 위해서 고학년은 양보하고 희생할 필요가 있어.

입장 2

다쳤다고 해서 이렇게 피구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아. 만약 어떤 놀이를 하다가 다치면 그 놀이도 전부 금지시킬 거야?

우리는 자유롭게 놀 수 있어야 해. 또 우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강제로 금지한다는 것이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

각각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권리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

입장 1

입장 2

각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권리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동의하는지 생각해 보고 이유도 함께 말해 봅시다.

나.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 봅시다.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토의에서 나온 결론을 써 봅시다.



위의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해 봅시다.

누가	필요한 노력(책임)

다른 모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권리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서로의 권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서로 존중하는 우리 반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냅니다. 교실이 누구에게나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실은 그런 곳인가요? 나와 선생님, 친구들은 서로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골라 '권리 존중 약속 상자'에 번호를 넣어 봅시다.

- 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내 자유니 참견 마.”
- ② 쓰레기를 몰래 사물함에 숨겨요.
- ③ “무슨 남자애가 이렇게 겁이 많아?”
- ④ 모둠 활동할 땐 다른 친구들 말에 귀를 기울여요.
- ⑤ “친구의 외모보단 마음이 더 중요해”
- ⑥ 교실이나 복도에서 소리치며 달려요.
- ⑦ 다른 친구를 놀리거나 때리지 않아요.
- ⑧ “나는 소중해, 다른 사람도 소중해.”



권리 존중 약속 상자

'권리 존중 약속 상자'에 넣지 않은 말이나 행동 중 하나를 골라 번호를 쓰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바꿔 써 봅시다.

번호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이나 행동

나. 모두가 행복한 우리 반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우리 반이 되기 위한 '권리 존중 약속'을 만들어 봅시다.

- 1 우리 반 생활 모습 떠올리기
- 2 권리 존중 약속 내용 정하기
- 3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 4 권리 존중 약속 모아 붙이기

평소 우리 반의 생활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와 우리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 상황을 써 봅시다.

서로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실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행복한 우리 반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이 필요한지 생각하여 써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반 권리 존중 약속'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붙임딱지)

각자 만든 '우리 반 권리 존중 약속'을 모아 붙여 봅시다.

모두 함께 만든 '우리 반 권리 존중 약속' 실천을 위해 다짐해 봅시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약속은 모두가 약속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합니다. 이 약속은 책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아래 포스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54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좀 더 알아볼까요?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동안 마실 물을 뜨려 1시간을 걸어가야 해. 힘들지만, 동생들을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우리나라는 옆에 있는 나라와 전쟁 중이야.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은 크게 다쳤어.



나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해. 카카오는 초콜릿을 만드는 재료야. 내가 일하는 시간은 하루 10시간, 나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



나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나라로 왔어. 여기선 나를 난민이라고 불러.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아.

각각의 어린이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참고하여 말해 봅시다.

위 어린이들의 권리 to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정리해 볼까요?

다음 물음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우리는 어린이날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면, 365일 중 364일은 어른의 날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어린이가 살아가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는 작은 어른이 아닌 ‘어린이’로 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린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2-1

어린이의 세계

- 어린이도 힘들다
- 어린이와 어른

2-2

이린어

- 해처럼 씩씩하게
- 어린이가 만드는 이린어

2-3

어린이의 눈과 손으로

- 어린이의 눈으로 찾기
- 어린이의 손으로 만들기

2-4

지금 놀고 싶어요

- 지금 잘 놀고 있나요?
- 우리들의 놀이

2-5

어린이 시민

- 어린이도 할 수 있어
- 어린이 시민



생각해 볼까요?

2022년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공부에 시달리는 어린이들과 자신을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 부르는 방구봉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방구봉과 어린이들이 외친 어린이해방선언문을 읽어 봅시다.

어린이해방선언문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회 ‘피리부는 사나이’ 중



〈어린이해방선언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가장 공감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문장을 더 추가한다면, 어떤 문장을 쓰고 싶나요?

넷 어린이는



배워 볼까요?

어린이로서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어린이의 눈과 손으로 주변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린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인 여러분은 집과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린이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지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 짓는 나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린이의 세계는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가. 어린이도 힘들다

 <아홉 살은 힘들다>를 읽고, 나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아홉 살은 힘들다.

이정록 시인

이 낸 전부터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용기 내어 맵고 뜨거운 요리를 먹었다.
똥 냄새 나는 청국장도 먹었다.
코 푼 화장지처럼 혀를 버리고 싶었다.
얻은 건 “다 컸네!”라는 칭찬이지만
달콤새콤하고 고소하고 보드랍던
음식을 자꾸만 입어 간다.

어린이도 추억이란 게 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쓴 입 다시며 숯가락 빨고 있으면
똑같은 말이 쳐들어온다.
“넌, 다른 애가 왜 그러니?”
맞다. 나는 다 컸다.
첫 아홉수는 참 힘들다.

 <아홉 살은 힘들다>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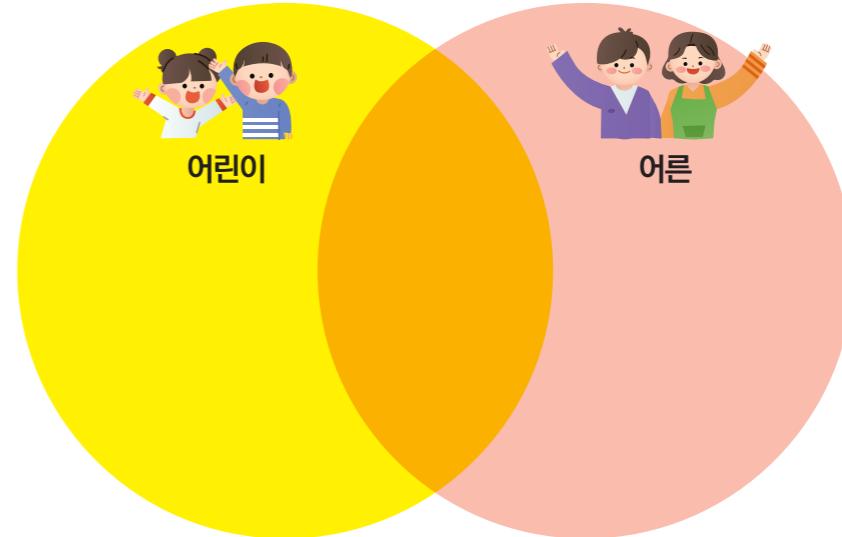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일이 있나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 짓는 나이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나. 어린이와 어른



어린이와 어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 봅시다.



 어린이와 어른은 서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여러분은 어린이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른은 어린이의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린이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애가 뭘 알아. 어린이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야지’하는 말에 아름다운 빛을 잃어
가고 있나요? 나이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어린이 세계에서 행복해지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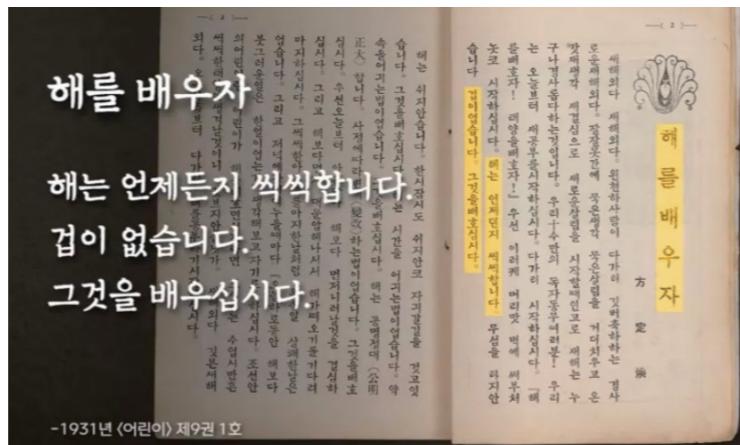


1923년 3월, ‘이린어’라는 잡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린어라니 물고기 이름같지 않나요? 사실 이 잡지의 진짜 이름은『어린이』입니다. 과거에는 글자를 오른쪽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 잡지의 이름은 이린어가 아니라『어린이』인 것이지요. 100년 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잡지『어린이』에는 어떤 글과 그림이 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어린이』를 만든다면 무엇을 싣고 싶은가요?

가. 해처럼 씩씩하게



1923년 3월,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잡지『어린이』를 만들고 ‘해를 배우자’는 글과 어린이를 위한 동화와 동시, 동요, 말판 놀이, 퀴즈 등을 실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아래 물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린이 잡지는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가 웃고 있는 사진과 어린이의 웃음소리를 찾아보세요.

방정환 선생님은 ‘하는 언제든지 씩씩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것을 배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방정환 선생님이라면 어린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빈칸을 채우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는 언제든지 씩씩합니다.
니다.
그것을 배우십시오.

나. 어린이가 만드는 이린어



『어린이』는 당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헨젤과 그레텔』은 ‘현철이와 옥주’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고, 어린이 독자들의 고민과 사연이 실리기도 했지요.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만들어 봅시다.



QR코드에 접속하여『어린이』에 실린 글과 그림을 살펴보세요.

가장 재미있는 글이나 그림을 찾아보세요.



잡지에 넣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만들고, 소개해 봅시다.



100년 전 어린이들에게『어린이』는 흥미진진한 배울 거리이고, 놀잇감이었어요. 여러분 곁에 때로는 깔깔 웃게 하고 때로는 평평 울게 하는 글자 친구, 그림 친구가 있나요? 한번 마음에 들어온 글자 친구와 그림 친구는 나를 한 뼘 더 크게 만들거예요.

어린이의 눈과 손으로



세상에는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에게 맞추어진 기준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어린이에게 맞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린이의 눈으로 주변의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 어린이를 위한 물건 또는 장소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봅시다.

가. 어린이의 눈으로 찾기



사진과 글을 보고,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장소를 찾아 봅시다.



학교 근처 길이나 공원에는 운동 기구가 많이 있다.
나도 운동 기구를 쓰고 싶은데 막상 기구를 쓰려니 너무 무겁고,
손이 잘 달지 않았다. 대부분의 운동 기구가 어린이가 쓰기엔
어렵고 힘들다.



집에 가다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있다.
어른과 손을 잡은 아이 그림에 대각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어른 손을 잡고 오면
안 된다는 뜻인가? 해제는 뭘까?

우리 동네에 있는 운동 기구를 사용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교통 표지판이 있나요?

어린이의 기준에는 어려운 물건이나 장소를 찾아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물건 혹은 장소

이유

나. 어린이의 손으로 만들기



아래 사진은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예술박물관입니다. 사진 속 박물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 봅시다.



사진 속 박물관은 내가 갔던 박물관과 무엇이 다른가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왜 어른의 눈높이에 전시물이 있을까요?

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적을까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박물관(미술관)을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 만들어 봅시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자 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세상의 기준은 무겁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사는 곳이라고 어른들에게 소리 높여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던 거 다 하고 놀아.’ ‘나중에 놀 수 있잖아.’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나요? 물론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꼭 해야 하지만, 해야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어린이인 우리는 나중에 말고 지금 잘 놀고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도 만들어 봅시다.

가. 지금 잘 놀고 있나요?

연우와 민성이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연우 주말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대학을 잘 가려면 수학이 중요하다고 주말에도 수학학원에 가게 되었어. 좋은 대학교에 가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셨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주말에도 놀지 않고 공부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농구는 나중에 해야지.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가 달라질 거야.



민성 나는 동생이 한 명 있어.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해서 집에 늦게 오시는데, 매일 동생 잘 챙기라고 전화하셔. 당연히 내 동생이니까 내가 잘 돌봐야 하지만 나가서 놀고 싶을 때도 많아. 내가 형이라서 부모님이 없을 때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게 지겨울 때도 있어.

여러분은 연우와 민성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어른의 말에 따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놀면 행복한 미래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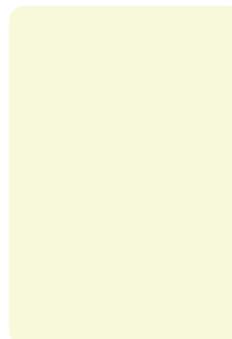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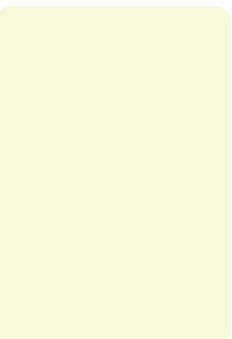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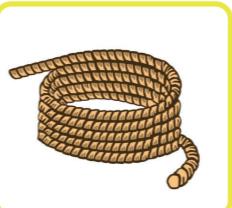
나. 우리들의 놀이



학교가 끝나면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게임을 하며 걸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는 없을까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 함께해 봅시다.

스마트폰으로 노는 것과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림과 같은 준비물이 있다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고 같이 놀아 봅시다.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 것일까요?



어린이에게 노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잘 노는 것은 어떻게 노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놀지 못했던 적이 많진 않았나요? 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나와 친구들의 놀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나중에 말고 지금 더 즐겁게 놀아 봅시다.



뉴스나 신문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하루 뉴스를 주의 깊게 보면 시민이라는 단어를 한두 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민인지, 어린이도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가. 어린이도 할 수 있어

아래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 봅시다.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영화작품을 심사하는 어린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린이 도슨트*에게 전시회 설명을 듣는다면 어떤 점이 흥미로울까요?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일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도슨트 :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나. 어린이 시민



세 친구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얘들아 궁금한 게 있어. 어린이도 시민일까?

연우



어린이는 세금도 내지 않고, 투표도 못하는데 시민은 아니지 않을까? 세금을 내는 우리 엄마나 삼촌은 시민일거야. 지금은 어른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시민이 될 수 있어.

민성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를 못해도 어린이도 시민이라고 생각해. 어린이가 어른보다 바쁜 일을 할 때도 많고, 어린이가 목소리를 내서 불편한 점이 바뀔 때도 있거든.

타냐

어린이는 시민일까요?

어른들의 말을 잘 따르면 시민일까요?

어린이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린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나요?



KTV 국민방송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어린이는 세금을 내지도 못하고, 투표를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역시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때로 어린이는 어른보다 힘이 없어 보이고, 목소리도 작아 보여요. 하지만 세상이 어린이를 어엿한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시민으로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면 어린이도 어른 못지 않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 주린이, 등린이, 요린이 등 ○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하거나, 미숙한 모습을 나타낼 때 ○린이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린이라는 말을 기사나 뉴스 등에서 찾아보고 ○린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등린이’에 안성맞춤 수타사 산소길 트레킹

숲길은 완만해 등산 초보자인 ‘등린이’도 쉽게 산행을 즐길 수 있을 정도였다.
20여분을 걷다 출렁다리가 보였다. 출렁다리는 길이가 74m 정도라 그리 심하게 흔들...




○린이는 무언가를 잘 못하는 사람을 재미있게 나타낸 말이야. 처음 시작하거나 서툴거나 못한다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말이기도 하고. ○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어린이를 낮추는 느낌은 잘 들지 않아.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어린이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있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고, 잘 못한다고 ○린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은 어린이를 우스꽝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해. ○린이라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말도 있을텐데 말이야.

○린이라는 말이 쓰인 영상, 기사, 댓글 등을 찾아 봅시다.

○린이는 어린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인가요?

○린이 사용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좀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제1권 제3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거짓말 하는 날〉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사 사람들의 거짓말 하는 날은 아무 폐해가 없을 뿐 아니라 펑 재미있습니다. 아라사에서는 해마다 4월 1일은 거짓말 하는 날이라 하여 그날은 어른이나 어린이 누구나 모두 거짓말을 하여 즐겁게 놉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는 집에 전화를 겁니다. “우리 딸 생일이니 얼른 축하하러 오라고.” 전화 받은 사람은 그날이 거짓말하는 날인 줄은 깜박 잊어버리고 생일 축하 선물을 사서 갑니다. 가서 생일 축하 인사를 하면 온 집안이 깔깔 웃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아.”

아라사는 어디일까요?

아라사에서 4월 1일은 무슨 날인가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생일 축하를 온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빙칸에 적어 봅시다.

100년 전에 이 글을 읽은 어린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리해 볼까요?

어린이로 잘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린이가 잘 살아가려면 어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인간은 모두 소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와 남자처럼 성별이 다르거나, 몸집이 작고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인 남녀의 차이로 인해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무시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3-1

우리를 가두는 생각



그 사람의 생김새



남자답게! 여자답게!

3-2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목소리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말해요

3-3

재미 속에 숨은 고정관념



우리의 재미 속에 숨어 있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음악회를 열어요

3-4

나의 빛을 찾아서



그건 상관없어요.



나의 빛을 찾아서

3-5

너와 내가 빛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모두 빛나고 있을까?



너와 나의 빛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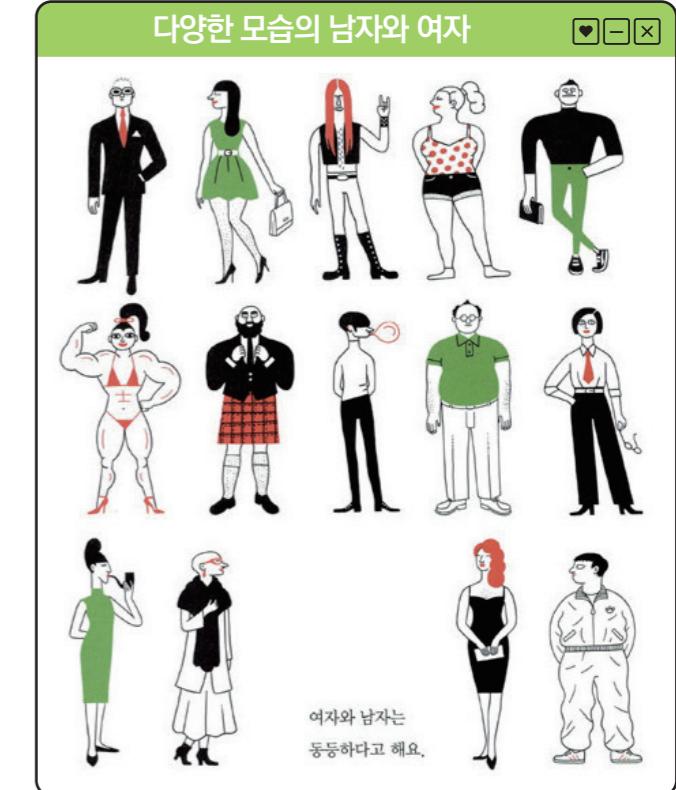


생각해 볼까요?

다양한 모습의 여자와 남자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 봅시다.



내가 나눈 것과 친구들이 나눈 것을
비교해 보세요.



결과가 같다면 왜 같을까요? 만약 다르다면 왜 다를까요?



배워 볼까요?

성별에 간힌 생각을 알아 봅시다.

생활 속에서 성별에 간힌 생각을 찾아 봅시다.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우리 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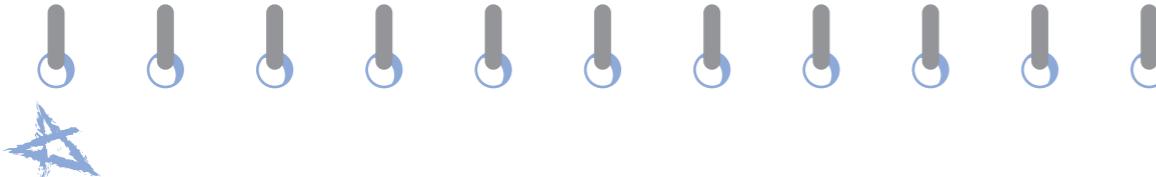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악당을 물리치는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투명 인간도 될 수 있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가. 그 사람의 생김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나. 남자답게! 여자답게!



자신의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 '여자' 역할을 뽑아 아래 제시어를 행동으로 표현해 봅시다.

소리 내어 웃기



달리기



화내기



울기



공 던지기



앉기



우리가 표현한 남자와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남자와 여자의 특징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남자답게'와 '여자답게'는 언제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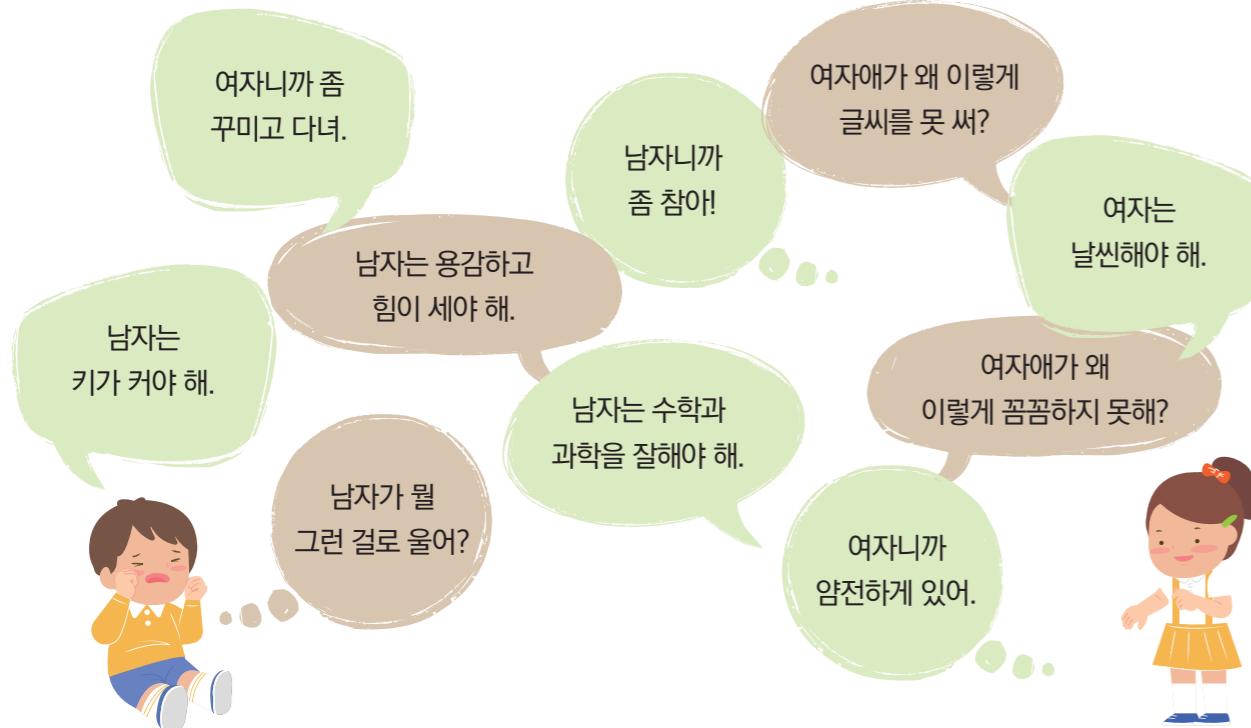
우리는 종종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지어요. 그리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렇게 성별에 갇힌 생각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편을 갈라 다툼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혹시 우리는 지금 '성별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목소리

우리는 가족, 친구, 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요. 어떤 말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속상하게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고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말들을 살펴 봅시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찾아 봅시다.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밖에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말들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숨어 있을까요?

나. 이렇게 말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싶은 말로 바꾸어 봅시다.

성별	속상하게 하는 말	이렇게 말해줘요
남자	예 남자가 뭘 그런 걸로 울어?	예 슬플 때에는 누구나 울 수 있어.
여자	예 여자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누군가가 내 친구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친구를 도울지 생각하며 역할극을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친구들이 만든 역할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 해.’와 같이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고,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성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성 고정관념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상처 주는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나 친구들에게 듣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속상한 말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말을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실천해 봅시다.



성 고정관념은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 숨어들었을까요?

가. 우리의 재미 속에 숨어 있어요



아기 상어 귀여운 바닷속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어여쁜 바닷속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힘이 센 바닷속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자상한 바닷속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바다의 사냥꾼 상어 가족

※ 출처 : 상어 가족(핑크퐁)



내가 커서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
아빠처럼 넥타이 매고 있을까?
엄마처럼 행주치마 입고 있을까?
랄라라 다 같이 흉내 내보자.
나는 엄마 나도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호호.
나는 아빠 나도 아빠 여보 여보 다녀왔어요.

※ 출처 : 어른이 되면(까비퀴즈)

 노랫말을 읽어 봅시다. 노랫말에 담긴 남자와 여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음악회를 열어요



노래를 하나 정해서 성별에 같은 노랫말을 찾아 자유롭게 빗나는 노랫말로 바꿔 봅시다.

성별에 갇힌 노랫말

자유롭게 빛나는 노랫말

자유롭게 빛나는 노랫말

 내가 정한 노래에는 어떤 노랫말이 우리를 성별에 가두고 있나요?

 자유롭게 빛나는 노랫말로 바꾸어 친구들과 즐겁게 노래해 볼시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까요?



성 고정관념은 노래 외에도 애니메이션, 영화, 동화에도 숨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기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생각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자다움, 남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찾아봅시다.

가. 그건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빛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질문에 답하고, 나와 비슷한 친구를 찾아요.

빈칸에 나의 생각을 적거나, 더 가까운 쪽에 ○표 해요.

나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를 찾아서 서명을 받아요.

나는 (짜장 / 짬뽕 / 볶음밥)이 좋다.				
나는 게임을 (좋아 / 안 좋아) 한다.				
나는 (그리기 / 만들기 / 글쓰기)를 좋아한다.				
나는 정리정돈을 (잘 / 잘 못) 하는 편이다.				
나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을 좋아한다.				
나는 []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 색을 좋아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 / 싫어) 한다.				

서명해준 친구들을 살펴 봅시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성별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나. 나의 빛을 찾아서

어떤 생각이 나를 성별의 고정관념에 가두고 있나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상상해 봅시다.

나를 가두는 생각들

예 여자는 화사한 색이 어울린다.

자유롭게 빛나는 나

예 파란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다.

자유롭게 빛나는 나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자유롭게 빛나는 나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나의 빛을 찾기 위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별의 고정관념은 사람들의 꿈도 가꿀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은 성별에서 자유로운가요?

너와 내가 빛나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 우리는 모두 빛나고 있을까?

 성별로 우리를 가두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해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무얼 하며 놀까요?

이번 체육 시간은 축구를 있다고 해요.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청소를 해요.

미술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기로 했어요.



 내가 상상한 교실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학급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나. 너와 나의 빛을 찾아



학급 회의를 통해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학급을 만들어 봅시다.

회의 주제

성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학급 만들기

앞선 활동을 생각하며 의견을 써 보세요.

왜냐하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우리의 약속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학급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우리 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특히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나만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도 자기만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의 '나다움'을 존중해 줄 때 모두가 자유롭게 빛낼 수 있어요.



도움길



인권 수다

“ 우리는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과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별의 고정관념에 갇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 우리 사회에서 성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의 일을 알고 있다면 간단히 적어 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

☞ 친구들의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문제

해결 방법

☞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한 해결 방법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알아볼까요?

“ 미래에 내 삶의 일부가 될 ‘직업’에도 성별의 고정관념이 숨어있어요. 그리고 이를 벗어나 ‘나 다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래 뉴스를 살펴 봅시다.”



☞ 뉴스에 등장하는 ‘금남의 벽’, ‘금녀의 벽’은 왜 생겨난 낱말일까요?

☞ 뉴스에 등장한 직업 외에 성 고정관념이 담긴 직업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 나는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직업을 꿈꾸고 있나요?



정리해 볼까요?

“ 다음 물음과 관련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 고정관념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모델 자료와 사진 출처

단원	주제	자료	출처
1. 서로를 존중해요	1-2. 소중한 우리의 권리	가. 아동권리송	https://www.youtube.com/watch?v=AaGdHTycJ6M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110724/
		도움길 좀 더 알아볼까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907251.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1339 https://www.sisakorea.kr/5267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26/119943065/1
2.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2.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단원 도입	한겨레 사회 '1년 365일 중 하루만 어린이날...364일 어른이 날은요?'(2023.5.7.)
	생각해 볼까요?	어린이해방선언문, 사진 캡쳐본	https://www.youtube.com/watch?v=As7_5YXh4nI&t=101s
	2-1. 어린이의 세계	아홉 살은 힘들다 (이정록 시인)	홍성신문 내포타임즈(2022.9.24.)
	2-2. 이린어	잡지『어린이』 뉴스 캡쳐본	한국 방정환재단-ON전람회-다시보는 어린이-어린이 창간호 https://www.youtube.com/watch?v=41-e0ojrbkY
	2-3. 어린이의 눈과 손으로	가. 어린이의 눈으로 찾기 사진	인스타그램 happy365wave(물결이_한국방정환재단)
		나. 어린이의 손으로 만들기 박물관 사진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눈을 낮추면 보이는 것들'(2023.8.10.)
	2-4. 지금 놀고 싶어요	나. 우리들의 놀이	Rawpixel
	2-5. 어린이 시민	가. 어린이도 할 수 있어	KTV 국민방송 아이들이 주인공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 아시아경제 서대문구 어린이 도슨트 모집(2010.2.5.)
	도움길	인권 수다	'등린이'에 안성맞춤 수타사 산소킬 트레킹(2023.10.19.) https://www.youtube.com/watch?v=1arrUjCHgm8
		좀 더 알아볼까요?	한국 방정환재단-ON전람회-다시보는 어린이-어린이 1권 3호
3.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배움길	생각해 볼까요?	〈다양한 모습의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플란텔 팀, 풀빛, 2017
	3-3. 재미 속에 숨은 고정관념	가. 우리의 재미 속에 숨어 있어요.	상어 가족 (핑크퐁) https://www.youtube.com/watch?v=761ae_KDg_Q 어른이 되면 (깨비키즈) https://www.youtube.com/watch?v=lHmoZsKPktY
	도움길	좀 더 알아볼까요?	여성 정비사와 남성 네일리스트…금남·금녀의 벽을 깨는 사람들 (MBN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N8_QyXx3A7Y&t=1s



2

초등학교 5~6학년

- 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 ②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 ③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무엇을 배울까요?

1-1

우리의 권리를 알아봐요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 ☞ 나에게 중요한 권리 찾아보기
- ☞ 아동권리협약을 알리는 디자인

1-2

쾅!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수 있어요

- ☞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 ☞ 권리가 충돌할 때, 해결 방법 생각해보기
- ☞ 김구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기

1-3

학생자치회는 어떤 기구일까요?

- ☞ 학생회장의 고민
- ☞ 학생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 ☞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것

1-4

의견을 모아 제안해요

- ☞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
- ☞ [모퉁이 토의] 우리의 의견 정리하기
- ☞ 학생자치회 '제안서'를 작성하기

1-5

우리가 참여하면 바꿀 수 있어요

- ☞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
- ☞ 참여 활동을 실천하는 방법
- ☞ 참여 활동 단계 알아보기



생각해 볼까요?



동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쉬는 시간에 뚱 짜기 싫어

누가 내 똥 냄새를 맡는 것도 싫고
뚱 짜는 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
누가 뚱 짜냐고 떠드는 소리는 더 싫어.
문밖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으면
나오던 뚱도 도로 쪽 들어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흔자 뚱 짜는 게 좋아.
수업 시간에 뚱 짜는 게 좋아.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뚱 짜는 게 좋아.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어떤 권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배워 볼까요?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 ☞ 학생자치회의 성격과 권리 및 의무를 알아 봅시다.
- ☞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우리의 권리를 알아봐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 보호를 약속한 국가들의 중요한 합의문입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누가 아동인지, 아동이 가진 권리와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연결되며, 각 권리는 모두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다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권리 중 일부입니다. 부록에 제시된 권리협약 1번~54번 내용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부당하게 대우해선 안 됩니다. 모든 아동은 그들이 누군가든지 사는 곳, 언어, 종교, 생각, 외모, 성별, 장애 여부, 경제적 상황, 부모나 가족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집니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잘 듣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2번은 언어, 종교, 생각, 외모, 성별, 장애 여부, 경제적 상황, 부모나 가족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동권리 12번은 아동은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나에게 중요한 권리 찾아보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 1번~54번 중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붙임딱지에 제시된 아동권리협약 1번~54번 권리 카드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아래 빈칸에 붙여 봅시다.

	여기에 권리 카드를 붙이세요.	여기에 권리 카드를 붙이세요.	여기에 권리 카드를 붙이세요.	여기에 권리 카드를 붙이세요.
--	---------------------	---------------------	---------------------	---------------------

유엔아동권리협약 1번~54번의 내용 중에서 현재 지금 나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권리 3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한 권리 카드(붙임딱지)를 아래 표에 붙이고, 선택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선택한 이유 :	① 붙임 (권리카드)	선택한 이유 :	② 붙임 (권리카드)	선택한 이유 :
	예 학교폭력 및 가정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선택한 권리 카드는 무엇인가요? 나와 다른 권리 카드를 선택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리는 디자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권리를 알리는 디자인을 재해석해서 다시 만들어 봅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6조 학생 디자인 예시 작품

디자인 스케치

내가 디자인할 권리협약은 몇 번인가요?

붙임쪽지를 보고, 권리협약 내용을 적어 봅시다.

내가 만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디자인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봅시다.

쾅!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수 있어요



아동권리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는 다양한 제도와 법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며, 어른들은 가정과 마을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하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충돌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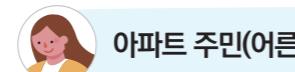
첫 번째 이야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보면서 권리 찾아 봅시다.]



민수(12살)

“저는 주말 아침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공놀이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요.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모든 일과가 끝나면 밤이 되어 놀기 어렵거든요. 주말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우리 노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데요. 결국 우리는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 민수의 권리?



아파트 주민(어른)

“주말 아침에는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쉬거나 늦잠을 자며 휴식이 필요해요.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주말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휴식 시간이에요. 하지만 주말 아침부터 놀이터가 시끌벅적거리며 서로 외치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 아파트 주민(어른)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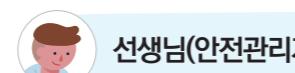
두 번째 이야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보면서 권리 찾아 봅시다.]



연수(13살)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농구와 배구를 할 때가 너무 즐겁습니다. 운동장은 이미 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 마음껏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농구나 배구는 체육관에서 해야 안전하고 더 잘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수업 시간 외에 체육관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 연수의 권리?



선생님(안전관리자)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끼리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해요. 체육관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많아서 질서 없이 놀다 보면 다칠 수 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상황에 대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체육관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 외에는 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어요.”

★ 선생님(안전관리자)의 권리?

나. 권리가 충돌할 때, 해결 방법 생각해 보기



여러분은 앞의 이야기에서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민수의 이야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
이유?

두 번째 [연수의 이야기]

앞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우리의 이야기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한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를 누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없을까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역할극으로 표현해 봅시다.

1. ‘민수의 이야기’를(아파트 주민의 관점 / 민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2. 이야기(아파트 주민의 관점 / 민수의 관점)를 역할극으로 표현해 보기
 - 예시 ① :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부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깐 상황
 - 예시 ② : 신나게 놀다가 시끄럽다고 혼나고 놀이터에서 쫓겨난 상황
3. ‘연수의 이야기’를(선생님의 관점 / 연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4. 이야기(선생님의 관점 / 연수의 관점)를 역할극으로 표현해 보기

친구들이 만든 역할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이 마을이나 학교 정책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라면,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다. 김구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보기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음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존중하되, 그것은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이다. 공원의 꽃을 (ㅋ ㄴ)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ㅅ ㄴ) 자유이다.

- 출처 : 김구(1947), 백범일지

학생자치회는 어떤 기구일까요?



학교는 우리가 세상을 그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또는 ‘학생자치회’라는 학교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학교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모아서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 학생회장의 고민

다음 ○○초등학교 학생회장의 고민을 읽어 봅시다.

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공약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제 공약은 ‘우유 급식 시간에 코코아 가루를 허용하자’입니다. 연설회 시간에 공약을 발표하는데 학생들 반응이 생각보다 폭발적이었어요. 교실에서 우유에 코코아 가루를 타 먹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된 지 한 달 후, 처음으로 전교 학생자치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학급대표들이 코코아 가루는 언제부터 허용되는지 물어보았어요. 전 회장에 당선이 되면 ‘코코아 가루 허용’ 공약은 당연히 교실에서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코코아 가루 허용 공약’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코코아 가루 허용에 대한 학생들의 바람은 점점 높아져 가고 공약은 꼭 실천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실행하기 너무 어렵네요. 학생회장은 책임은 많고, 권리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 속 학생회장의 공약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이 ‘코코아 가루 허용 공약’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학생회장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나. 학생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학생자치회 선거기간에는 대부분 학교가 시끌벅적합니다. 모든 관심이 학생회 후보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학생회 임원들이 다양한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자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고, 생각을 공유해 봅시다.

“학생자치회는 [] 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것



다음 인물들의 대화를 읽어 보고, 생각해 봅시다.



예원(학생회장)

지금부터 ‘학생다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진행되는 놀이 시간(30분) 운영과 체육관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건 제안은 6학년 1반 학급대표인 이정수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정수

학생회 공약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2교시가 끝나고 ‘놀이 시간’이 30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 시간’에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다치는 일과 축구 골대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 시간’을 질서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학년별 ‘놀이 시간’ 프로그램을 정하거나 운동장 사용에 대한 약속이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해진 시간 외에 자유로운 체육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아(학생부회장)

안건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모둠별로 10분 동안 제안된 안건에 대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시간’ 프로그램과 지켜야 하는 규칙과 약속, 체육관 사용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학생들의 의견을 제안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대화는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인가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걸까요?



위 대화를 다시 읽어 보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자치회]는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을까요? 다음 제시되는 단어 중에서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이해 요구 생각 의견 건의 주장 공약 약속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를 반영하는 기구이다.”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을 학교(선생님께)에 []할 권리가 있다.”

“선거 이후 학생자치회는 []이나 정책을 안내할 책임(의무)이 있다.”

우리가 참여하면 바꿀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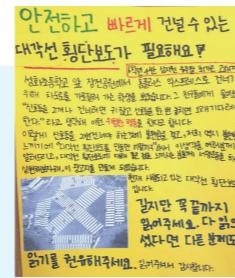
우리는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학교)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

다음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불편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이런 불편한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차 없는 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하거나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 통제합니다. 나머지 공간을 사람들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운전자의 입장에서 잠깐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모두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또한, 사람의 이동이 많은 도심지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거리 신호등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했던 것을 모든 방향으로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자동차 입장에서 모든 차들이 멈추어야 하기에 대기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권리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입장은 더 배려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제시된 벽보 이미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홍보자료일까요?

위 사례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권리 중 누구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학교에 위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무언가를 제안하는 벽보나 포스터를 붙인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 참여 활동을 실천하는 방법

사회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원인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또한,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 봅시다.

현장조사는 문제가 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도나 종이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가 조사한 장소의 위치와 문제 상황, 날짜와 시간 등을 표시해 두세요. 문제점을 발견할 때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어요. 공공장소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하고, 촬영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배포하면 안 됩니다.



[문제분석] -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찾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찾은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하면 좋을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무단횡단을 얼마나 하는지 직접 지켜보며 세어보는 방법도 있고, 주변의 경찰서 교통과에 찾아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옆 참고 사진의 학생들은 학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는지, 횡단보도에 불편함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방법을 활용했어요. 이 경우 비교 대상이 있으면 더욱 좋아요. 즉,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사진 자료의 설문조사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나요?



[설문 조사]에 대해 알아 봅시다.

여러분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란 사회 현상을 분석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둔 질문지나 면접을 활용하여, 답변을 받고 이를 분석하는 조사 활동을 말해요. 이런 설문조사는 보통 종이에 인쇄된 설문지를 사용하거나 전화 설문이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전문 기관처럼 신뢰도가 높은 설문조사를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도구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다. 참여 활동 단계 알아보기



우리 사회(학교)의 어떤 문제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실제로 주변에 알리고,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단계별로 직접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주변에 알리기

1. 벽보 붙이기 (주장하는 글 또는 요청하는 글)
2. ‘포스터’로 알리기
3. 신문기사 써보기
4. UCC 또는 뉴스 등 동영상 제작하여 알리기

2단계 직접 행동하기

1. 학생들 또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
2. 서명운동
3. ‘청원서’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여러분은 우리 사회(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은 현재 우리 사회(학교)에서 직접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인권 수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자기 의견을 얼마나 말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학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학급에서 함께 정하는 규칙, 학교 행사 및 현장체험 학습 등 모든 것이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학생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학급 회의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들로 구성된 ‘전교 학생자치회’라는 공식적인 기구도 있지만 학교 행사에 사회를 보는 역할을 하기도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서 학교의 다양한 일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급 회의 또는 전교 학생자치회 회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학생자치회의 회의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학교 건의함’에 건의 사항을 적어서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모으는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지요. 또 교장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제안서를 크게 작성하여 학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건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은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것이 좋아요. 많이 참여해 보고 경험해 보아야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실패해도 좋아요. 그래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회의에 참여합니다. 나는 어떤 참여자인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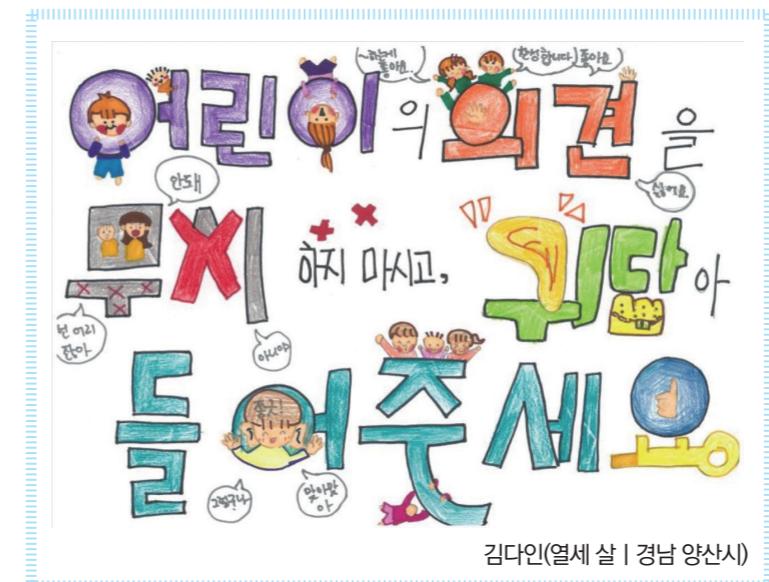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잘 지키기도 하고 지키기 싫어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알아볼까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한 [어린이 선언]이 온 거리에 뿌려졌어요.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이 발표되었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다양한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 선언’에 표현과 다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방정환 재단]의 우리들의 ‘2019. 어린이 선언’



어린이 선언문

1. 어린이가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를 지어주시오.



2. 어린이를 책 많으실 때 따리지만 말고 자세히 태일려 주시오.



3. 어린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세요.



배재현, 박시온(열두 살 | 대구시 북구)



정리해 볼까요?

 이번 단원을 배우며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세상은 마치 큰 무지개와 같습니다.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색깔이 함께 있을 때야말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 2-1 주위를 둘러봐요**
 - ☞ 우리는 달라요
 - ☞ 나와 다른을 인정해요
 - ☞ 다르지만 함께 살아요

- 2-2 조금 다를 뿐이에요**
 - ☞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 ☞ 우리학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 ☞ 모두 편리하게 이용해요

- 2-3 너무 빨라요**
 - ☞ 키오스크가 두려워요
 - ☞ 이제 두렵지 않아요
 - ☞ 만능 키오스크 만들어봐요

- 2-4 희망의 땅을 찾아서**
 - ☞ 난민 어린이의 이야기
 - ☞ 낯선 곳에 간다면
 - ☞ 난민이 온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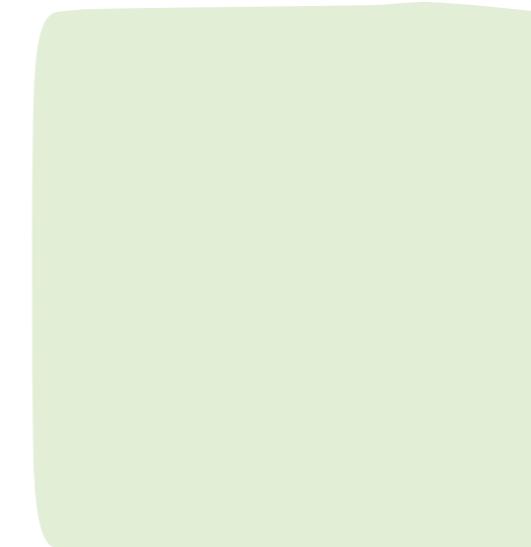
- 2-5 동물들도 권리가 있을까?**
 - ☞ 애완동물? 반려동물?
 - ☞ 권리가 잃어버린 동물들
 - ☞ 동물의 권리를 위해



생각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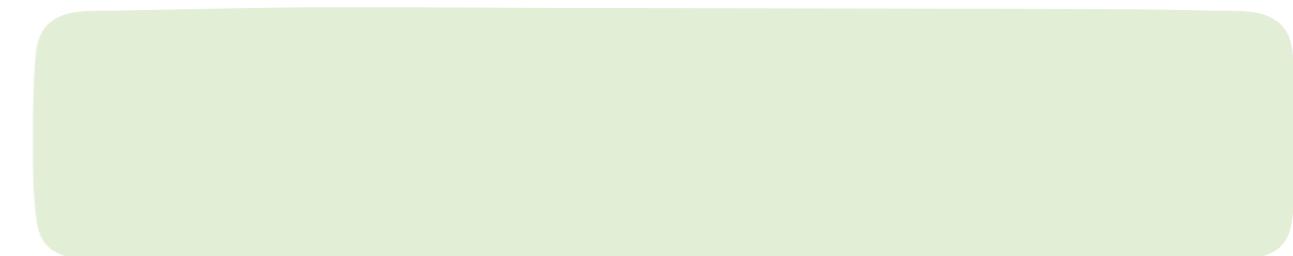
그림 속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출처 :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포스터 중 일부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이 어때 보이나요?



배워 볼까요?

- ☞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알아 봅시다.
- ☞ 다문화, 장애, 고령자, 비인간동물 등 소수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 ☞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난민 수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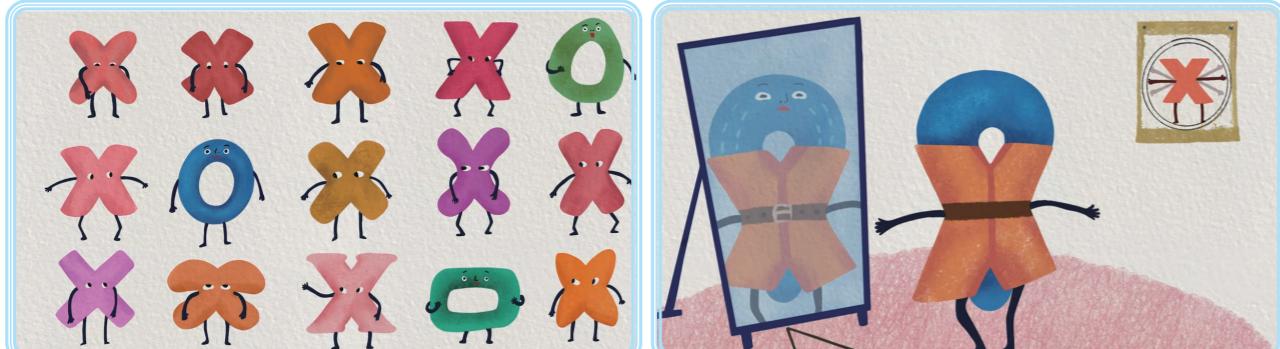
주위를 둘러봐요

여러분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어떤가요?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우리는 달라요

○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출처: 경기교육문화재단 - 다이아프로젝트 '○ 이야기'



여러분도 ○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가 ×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들은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줬을 때 ○는 왜 불편해했을까요?

○와 × 모두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 나와 다른을 인정해요

수니타는 인도사람입니다. 아빠의 일 때문에 한국으로 이사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인도에서 다니던 학교와 많이 다른 문화가 낯설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건 바로 급식시간이었습니다. 수니타는 인도의 힌두교 신자고 종교적 이유로 소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 급식에서는 소고기 미역국, 소 갈비찜, 심지어 소고기가 들어간 콩나물밥까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반찬을 먹거나 최대한 골라내고 먹지만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 모습을 본 영찬이가 수니타에게 말했어요. “야, 그 맛있는 소고기를 왜 너는 다 빼고 먹으려 하니? 아깝지도 않아?” 수니타는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 움츠러들었어요. 그러자 옆자리 서윤이가 도움을 주었어요. “책에서 본 거 같은데,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가 있다던데?” 수니타는 대답했어요. “응.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이라고 여기고 해치거나 먹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믿고 있어. 힌두교를 믿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자 영찬이도 머쓱해하며 사과했어요. “수니타, 내가 인도의 문화를 몰라서 그랬어. 기분이 나빴을 거 같아, 미안해.” 영찬이의 말을 들으니 수니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괜찮아 영찬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 근데 왜 김치만 빼고 먹었어?” 그러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찬이가 수니타에게 왜 소고기를 빼고 먹느냐고 물어봤을 때 수니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서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니라면 우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 다르지만 함께 살아요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그래프를 볼 때 우리가 생활하는 교실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여러 문화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Point!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 문화, 사상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와 다른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는 온 세상을 더욱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모든 일을 쉽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 봅시다.

가.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윤이의 일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사이다를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에 갔다. 점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나는 배운 점자를 활용해 스스로 찾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점자로 된 라벨에는 ‘맥주’, ‘탄산’, ‘음료’ 세 가지만 적혀있었다. 이건 사이다인가, 아니면 콜라인가?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원하는 음료수를 찾기 위해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호의 일기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다. 불빛이 너무 많아 눈이 너무 부셨다. 그래서 눈앞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비닐봉투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팠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래서 손으로 1부터 10까지 세면서 마음을 안정시켜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렸고 나는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두 친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두 친구가 누리지 못한 권리는 무엇일까요?

두 친구가 권리가 누리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 우리 학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거나 전학을 오게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학교 곳곳을 살펴보며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찾아보고 표를 완성해 봅시다.

어떤 편의시설인가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예) 중앙현관 경사로와 안전바	예) 휠체어를 타는 학생	예) 계단이 있어 올라오지 못하는 중앙현관을 휠체어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다. 모두 편리하게 이용해요



만약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내 생각과 그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내 생각

그렇게
생각한 이유

친구들과 토의를 한 후, 토의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 사용 문구를 만들어 봅시다.

예) 잠시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주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 모두가 편리하고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살아갑니다.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추어 수월하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가. 키오스크가 두려워요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선호로 인해 모니터를 직접 눌러 주문하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가 많아졌습니다. 간편하고 빨라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키오스크가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극장에서 키오스크 이용 문제



마트에서 셀프 계산 문제



음식점 무인 주문 문제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내사 배치



디지털 배움터 사업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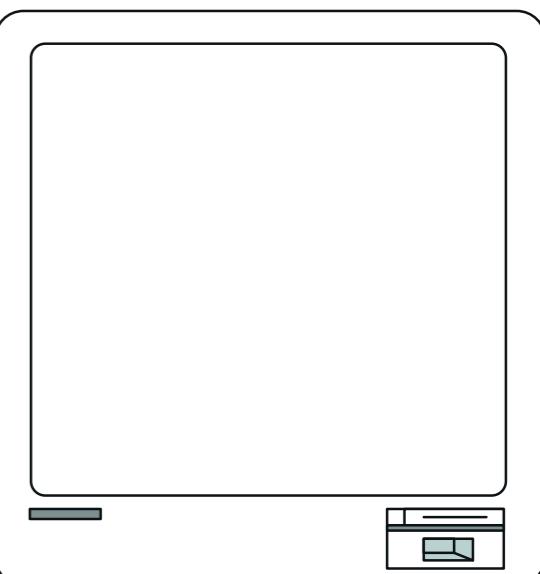
 위와 같은 노력들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키오스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다. 만능 키오스크 만들어봐요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로 비대면 거래를 한 65세 이상 소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키오스크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복잡한 단계(51.4%)'였다. '다음 단계 버튼을 찾기 어려움(51.0%)', '뒷사람 눈치가 보임(49.0%)', '그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음(44.1%)' 등이 뒤를 이었다. 키오스크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절반 이상이 검색, 결제방법 등 조작 방식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키오스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고, 노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키오스크를 디자인해 봅시다.



 이 키오스크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이 키오스크를 만들 때 특별히 신경 쓴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만든 작품을 소개해보고 친구들의 작품과 비교해 봅시다.



디지털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서 평등하게 정보를 얻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은 어떨 거 같나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보고 그때의 마음을 상상해 봅시다.

가. 난민 어린이의 이야기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자신의 집이나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이바인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출처 : 유니세프 코리아 – 이바인과 배게

전쟁이 일어나 내가 사는 집과 동네를 떠나야만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쟁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다. 난민이 온다면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나자 우리나라에 난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 둘로 나뉘어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찬성 측 의견	반대 측 의견
인간적인 도리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난민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갑자기 대거 들어오게 되면 문화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휴전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다.	난민을 받아들일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준비되지 않았다.

난민 수용에 대해 내 생각을 수직선에 표시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난민 수용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해 봅시다.

토론 후 내 생각을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토론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 낯선 곳에 간다면

전쟁을 피해 낯선 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낯선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Application for asylum	
1. Apellido	
2. Primer nombre	
3. Fecha de nacimiento	
4. País, ciudad de residencia	
5. Ou genyen fanmi ne etazini?	
6. Kisa yo ye pou wou	
7. Ki papye imagrasyon fanmi ou yo genyen is it?	
8. Eske ou assent?	
9. Eske ou gen avoká?	
10. Ou jam al nahoken jyman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해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난민 신청 서류가 거절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동물들도 권리가 있을까?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을 뭐라고 부르나요?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찾아 봅시다.

가. 애완동물? 반려동물?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의미를 한자를 통해 알아 봅시다.

애완동물 [愛玩動物]

愛 사랑할 애, 玩 장난감 완

반려동물 [伴侶動物]

伴 짹 반, 倍 짹 려

- 애완동물은 단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들을 볼 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나요?
- 반려동물은 단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들을 볼 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나요?
-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중 어떤 단어가 동물을 존중하는 단어일지 생각해 봅시다.

나. 권리를 잃어버린 동물들



유기동물에 관한 글을 읽어 봅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늘어나는 유기동물

주위를 둘러보면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네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들이 많지만, 반대로 사람에게 버려지는 동물, 즉 유기동물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동물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버려지게 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처음에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입양했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 동물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사한 집에 동물을 키울 수 없어서, 돌보는 비용이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버려진다고 한다.

유기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되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간동안 입양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되거나, 입양이 되어도 다시 센터로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 두 번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유기되는 동물들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해 봅시다.

- 유기동물은 어떤 권리를 잃고 있을까요?

다. 동물의 권리를 위해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반려동물도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나면 동물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사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탁의 말을 써 봅시다.



인간과 동물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이어질 것입니다.



5월 21일은 '문화 다양성의 날'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민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며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UN이 2002년 제정한 기념일

우리나라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문화 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은 '문화 다양성 주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2015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문화 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UN과 우리나라가 '문화 다양성의 날'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여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해 알아 봅시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사용성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의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손잡이



변경 전

변경 후

기존의 문 손잡이는 어떤 점이 불편했고,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주변 물건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계획해 봅시다.

대상	특징	불편한 점	해결 방법
예) 플러그와 콘센트	예) 꽂았다가 빼는 것을 반복한다.	예) 손에 힘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은 빼는 것이 어렵다.	예) 콘센트 위에 버튼을 만들어서 누르면 쉽게 빠지게 한다.

대상	특징	불편한 점	해결 방법



'더불어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3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우리가 사는 일상 곳곳에 여러 경로를 통해 스며든 차별과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든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에 함께 할 때 비로소 평등한 세상에 한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3-1

미디어 속에 그려진 세상

- 👉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
- 👉 차별 장면을 바꿔주세요!
- 👉 차별에 대항하는 우리의 목소리

3-2

일상 속에 녹아든 차별의 말들

- 👉 일상에 쓰인 먼지 차별의 말
- 👉 언어 감수성 테스트
- 👉 차별 없는 말로 바꾸어 봐요

3-3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 👉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 👉 청소년 기후 소송
- 👉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3-4

기후위기와 불평등

- 👉 기후위기 속 인권
- 👉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나요?
- 👉 우리도 고통 받고 있어요

3-5

기후정의를 위하여

- 👉 당신들이 미래를 훔쳐가고 있다
- 👉 기후 행동 피켓을 들어요
- 👉 기후정의 캠페인



생각해 볼까요?



서명 운동



배지 달기



캠페인 활동



1인 시위



사진과 같은 행동을 보거나 실천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배워 볼까요?

- ✏️ 미디어에 담긴 편견과 차별의 장면을 알아 봅시다.
- ✏️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언어 사용을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 ✏️ 기후위기와 인권을 연결 지어 생각해 봅시다.
- ✏️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봅시다.

미디어 속에 그려진 세상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인 TV나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고 여러 자료를 즐길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미디어 속에 그려진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미디어 속에 그려진 세상의 모습은 편견이나 차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



아래 두 웨드라마에 나온 여성 캐릭터를 비교해 봅시다.

(가) 자신감이 없던 여자 주인공이 안경을 벗고 살을 빼는 등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웨드라마



(나) 통통한 외모를 가진 여자 주인공이 주변의 폭력적인 시선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의 웨드라마



(가)와 (나) 두 개의 웨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각각의 웨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봤던 미디어 속 여성 캐릭터는 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 차별 장면을 바꿔주세요!



미디어 속 차별 장면에 대응한 사례를 알아 봅시다.

논란이 이어지는 미디어 속 차별 장면

2019년,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웹툰에서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장면을 담아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된 웹툰에서는 한 청각장애인이 닭꼬치를 사 먹으며 “닭꼬티 하나 얼마예요?”라고 묻고, 속마음을 그린 말풍선에서도 ‘하나만 머거야’, ‘딘따 먹고딥엣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말과 생각을 모두 어눌하게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인권 단체와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청각 장애인은 제대로 말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담겨 있고,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묘사했다.”며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웹툰 작가는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고 사과문을 공개했다.

한편, 법원에서 영화 제작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경우도 있다. 해당 영화사에서 제작한 한 영화는 특정 국적 출신의 아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범죄 도시처럼 묘사했다. 묘사의 대상이 되는 아주 노동자들은 해당 영화가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영화에서 그려진 묘사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의 글에서 제시된 웹툰과 영화가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차별적인 표현을 담은 미디어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디어 속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차별에 대항하는 우리의 목소리



미디어 속에 숨겨진 편견이나 차별을 바꾸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

- ① 발표 상황 파악하기
- ② 주제 정하기
- ③ 내용 정하기
- ④ 장면 정하기
- ⑤ 촬영 계획 세우기(역할, 장소 등)
- ⑥ 촬영하기
- ⑦ 편집하기
- ⑧ 발표하기

미디어에서 드러난 편견이나 차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주제

일상 속에 스며든 차별의 말들



여러분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차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은연중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부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말 속에 담겨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일상 속 차별의 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 일상에 쓰인 먼지 차별의 말

아래 기사문을 보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셔틀버스 대기 공간입니다. 더위·추위를 피하라고 만든 공간의 이름은 '맘스 스테이션'입니다. 엄마와 정거장을 할큰 단어인데, 육아를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드러내는 차별 언어라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는 2년 전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미묘한 차별을 일상 속 차별, 혹은 먼지 차별이라고 합니다. '먼지 차별'은 먼지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주변에 쌓여 있고 동시에 유해하다는 뜻입니다. 이 차별, 어떤 사람은 매일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무슨 남자가 운전도 못 해."라고 차별을 드러내는 표현부터 "장애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다 착해."라는 우호적인 차별 언어도 계속 차별과 편견을 공고하게 하는 말이기에 먼지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는 말을 들을까 피해자들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주변 제삼자가 "이게 차별이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먼저 이런 먼지 차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점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지 차별이란 무엇인가요?

좋은 의도를 가진 우호적인 표현도 왜 먼지 차별에 해당할까요?

우리 일상 속 먼지 차별의 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지 차별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나. 언어 감수성 테스트



다음 중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말을 골라 보세요.

유모차

반팔티

결정 장애

장애를 앓는 사람

여교사, 여의사

요린이 (요리 초보자),
등린이 (등산 초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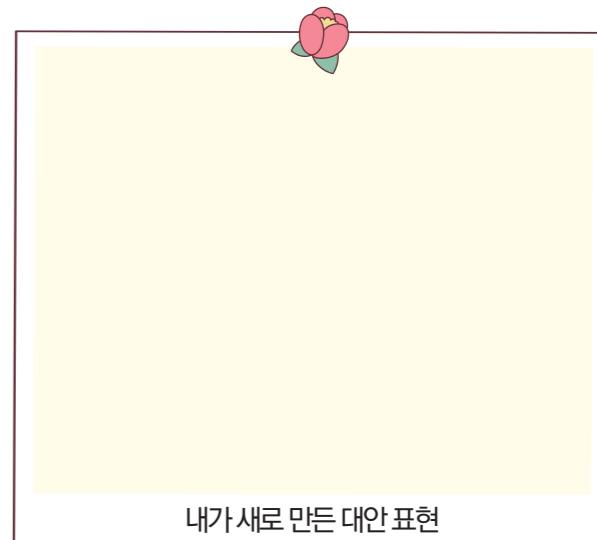
위의 말들은 어떤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차별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차별 없는 말로 바꾸어 봐요



차별 언어를 바꾸어 사용한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시를 보고 카드 뉴스를 꾸며 봅시다.



※출처 : 김해문화재단 2020 무지개다리사업 말모이

우리가 제작한 카드 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일상 속 차별의 말에 대해 주변에 알려 봅시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 지구 생태계 전체에 위협이 초래된 현상을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구 곳곳에서는 기후위기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린이·청소년인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가.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연수와 서진이의 대화를 읽고 누구의 생각에 더 동의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연수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나는 기후위기가 우리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올 여름에 우리나라에도 폭염이 이어져서 우리는 밖에 잘 나가놀지도 못했잖아. 어른들은 옛날보다 지금 봄, 가을이 짧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 할머니 댁이 있는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농사가 잘 안 되어 고생하셨는걸.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는 인간이 마음대로 화석연료를 써서 벌어진 일이잖아. 당연히 우리의 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VS

서진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기후위기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기후위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린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도 다니고 일상생활을 살고 있잖아. 기후위기의 피해는 대체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멸종 위기 동식물과 관련이 있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고 오염을 일으킨 건 어른들이지 우리가 아니잖아.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기후위기에 대해서 연수와 서진이는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누구의 입장에 더 가까운가요? 내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라고 /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

나. 청소년 기후 소송



2020년, 우리나라의 청소년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후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이○○
(만18세)

지구 온도가 4도 높아지면 제가 사는 지역은 대부분 물에 잠긴다고 해요. 우리 집과 추억이 담긴 동네가 사라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른들을 보면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우리 집이 물에 잠길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우○○
(만13세)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눈사람 만드는 것도 좋고, 눈이 내리는 것도 아름다워서요. 이젠 눈도 점점 내리지 않고, 겨울도 따뜻해지고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제게 행복을 주던 겨울을 계속 느끼고 싶어요.

안○○
(만18세)

어릴 때부터 생태학자를 꿈꿔왔는데, 기후위기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후변화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행동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요?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인 여러분도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후 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은지 적어 봅시다.

대상

예 정부, 기업, 학교, 개인 등

**요구하고
싶은 내용**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국적, 성별, 나이, 경제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불평등하게 나타날까요? 또 지구에 사는 인간 외의 다른 존재들에게 기후위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가. 기후위기 속 인권



아래 기사문을 보고,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 투발루 외교장관 '수중연설'

지난 2021년, 남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의 코페 외교장관은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연설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해 국토가 물에 잠기는 위기를 생생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코페 외교장관이 영상을 촬영한 지역도 한때 육지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코페 외교장관은 영상에서 “투발루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바닷물이 항상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말뿐인 약속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투발루의 국토는 매년 4mm씩 물에 잠기고 있으며, 식수원이 오염되고 경작지가 훼손되는 등의 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만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 야외 노동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염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적인 여름의 기온보다 기온이 높은 날들이 길어지면서 온열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온열질환 중 30% 이상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설 노동자, 물류 노동자, 옥외 청소 노동자 등 야외에 작업장이 있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야외 노동자에게 매시간 10~1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지만, 에어컨은 커녕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노동자 ○○씨는 “무거운 철근이 뛰약볕에 달궈져 화상을 입기도 한다.”며, “충분히 쉬지도 못해 어질어질한 상태로 일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투발루의 국민들과 야외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나요?

일기자료 세계인권선언 조항을 함께 살펴 봅시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와 (나)에서 어떤 권리들이 침해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들이 침해받고 있는 인권은 무엇인가요?

나.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있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할까요? 아래의 활동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1 인물 카드를 한 장씩 받습니다.

2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서 자신의 인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3 선생님이 상황 문장을 하나씩 읽어줄 때마다, 그 상황에 자신이 봄은 인물의 상황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한 발짝 앞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다른 인물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 인물 중에 거의 움직이지 못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인물 간 거리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우리도 고통 받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인간만의 문제일까요? 아래 동식물 중 하나를 골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조사해 봅시다.

구상나무

산호초

푸른바다거북

황제펭귄

북극곰

내가 정한 동식물

내가 고른
동식물

기후위기로 인해
겪고 있는 일

기후정의를 위하여

기후위기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는 그 집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후정의'라고 합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운동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 당신들이 미래를 훔쳐가고 있다

청소년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 알아 봅시다.

"어른들이 내 미래를 망쳤으니, 나도 선거일까지 기후 파업을 하겠습니다."



2018년, 스웨덴의 15세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벼랑 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어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나서서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기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읽기자료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문을 읽어 봅시다.

그레타 투네리가 기후 파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레타 투네리가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연설문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을 적어 봅시다.



그레타 투네리 연설문



나. 기후 행동 피켓을 들어요



주변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상자 피켓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

- 피켓을 만들 상자, 매직이나 사인펜



내가 넣고
싶은 문구

다. 기후 정의 캠페인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 변화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후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계획을 세우고 캠페인을 해봅시다.

캠페인 활동 계획

참가자

일시, 장소

대상

활동 내용



○○초 기후정의 캠페인



네덜란드, 기후위기 비상행동

도움길



인권 수다

평등한 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벡델 테스트

미국의 만화가 벡델은 영화 속에서 여성이 적게 나오고,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로 주로 나오는 것에 문제를 느꼈어요. 그래서 영화 성평등을 기준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만들었지요.

- ①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이 둘 이상 등장한다.
- ② 여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
- ③ 남자에 대한 이야기거리 이외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티리온 테스트

미국의 장애인활동가 앤드류 풀랑은 벡델 테스트를 본 때 영화가 장애인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장애인 캐릭터 ‘티리온 라니스터’의 이름을 따서 테스트의 이름을 붙였지요.

- ①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장애인 등장인물이 장애 이외의 주제로 줄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장애가 현실적으로 묘사된다.
- ③ 영화 속 장애인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나온다.

※위의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영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위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영화’라고 할 수도 없지요. 위의 두 테스트는 성평등, 장애라는 특정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 이러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미디어 속 차별을 거를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좀 더 알아볼까요?

세계 곳곳에는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개설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UNHRC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각각의 기관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단체에서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생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액션이나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봅시다.



정리해 볼까요?

다음 물음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미디어나 일상생활에서 차별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기후위기의 영향은 집단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기후정의를 위해 개인, 학교, 기업,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 모델 자료와 사진 출처

단원	주제	자료	출처
1. 우리의 권리를 알아봐요.	생각해 볼까요?	쉬는 시간에 뚱 싸기 싫어	블로그 https://blog.naver.com/gyergirl/222240394728
	1-1.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나. 나에게 중요한 권리 찾아보기	아동권리카드 2번, 12번, 28번, 19번, 16번 이미지 https://www.unicef.or.kr/about-us/unicef/mission/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리는 디자인	
	1-2. 킁!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수 있어요.	다. 김구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imagephil/40037372820
	1-3. 학생자치회는 어떤 기구일까요?	나. 학생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udygir/221493195955
	1-5. 우리가 참여하면 바꿀 수 있어요.	가.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이야기 자료]	도서 – 어린이의 눈으로 안전을 묻다. P.124~125 일부 발췌
2.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좀 더 알아볼까요?	2019. 어린이 선언	방정환 재단 사이트 https://children365.or.kr/children-announcement
	2-1. 주위를 둘러봐요	생각해 볼까요?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포스터 http://simin24.com/?doc=news/read.htm&ns_id=8927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wcmf&logNo=130021079354
		가. ○ 이야기	경기교육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h9km7GDSX0o
		다. 꺾은선 그래프	데이터솜 [원자료=행정안전부]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66
		다. 원그래프	tbs 뉴스줌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nstbs1/220774011741
	2-3. 너무 빨라요.	가. 뉴스 영상	kbs 뉴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u_UqKOiXRtA
		나. 사진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352
	2-4. 희망의 땅을 찾아서	가. 동영상 '이바인과 배게'로 수정	유니세프 코리아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g-3g7XJT5ow&t=74s
		나. 난민 신청 서류	경기도교육연구원(교통합형 인권교육 수업 모델 개발) 216p. 부록 2-3-3
	2-5. 동물들도 권리가 있을까?	다. 사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66&menuNo=2000000016
도움길	인권 수다, 포스터	뉴스기사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712
		부산광역시 북구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bsbukgusns/223099502668

단원	주제	자료	출처
2.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2.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좀 더 알아볼까요?	도움길	인권 수다, 포스터 양주시청 누리집 https://www.yangju.go.kr/culture/selectBbsNttView.do?key=2514&bbsNo=288&nttNo=167638&searchCnd=all&searchKwd=&pageIndex=1&integrDeptCode=
		사진 1, 사진 2	뉴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213230001285?did=GO
		사진 3	뉴스 기사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44&replyAll=&reply_sc_order_by=l
3.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생각해 볼까요?	배지 달기	송곡관광고등학교 학생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727838087483575/posts/1773915046209212/?_rdr)
		캠페인 활동	영등포 신문 – 정의당 서울시당 '무지개 정의단', 당산역 앞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 진행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43438)
		1인 시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http://kfem.or.kr/?p=218872)
	3-1. 미디어 속에 그려진 세상	웹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	한겨레 – 여성은 살빼고 화장해야만 하나요? 웨드라마 속 성차별 보니
		일상 속에 스며든 차별의 말들	SBS 뉴스 – '먼지 차별' 아십니까?…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68947&plink=LINK&cooper=YOUTUBE&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차별 없는 말로 바꾸어봐요	김해문화재단 문화정책 밭간자료 혐오표현 카드(어린이 청소년용) (https://www.ghcf.or.kr/ghcf/culturalpolicy/cp_05.jsp)
	3-3. 우리는 모두 연결 되어 있다	청소년 기후 소송	Pinterest
		그레타 툰베리	BBC 코리아 – 기후변화 : 학교로 돌아간 그레타 툰베리의 지난 1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916271?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기후행동 피켓	연합뉴스 – 피켓이 된 종이상자 (https://www.yna.co.kr/view/PYH20190925090500013) 광주드림 – “날씨가 심상치 않다” 광주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018)
	3-5. 기후정의를 위하여	네덜란드 기후위기 비상 행동	케미컬 뉴스 –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세계 185개국 곳곳에서 열려 (https://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

▣ 총 팔

송호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과장

▣ 기 획

정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 집필진

장경훈 덕장초등학교	전세란 서울정덕초등학교
최은경 대하초등학교	신창훈 정평초등학교
이상근 청천초등학교	강한아 능내초등학교
이우철 무주초등학교	이태환 능길초등학교

▣ 연구진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우라미 이화여자대학교
엄수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장경훈 덕장초등학교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최은경 대하초등학교
문민지 경인교육대학교	김지혜 경기도교육연구원

▣ 표지·본문 디자인·편집 세창 1544-1466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교과서 모델

- 발 행 일 2023년 12월 15일
-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기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54
- F A X 02)2125-0917
- E-mail hoso@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595-4 94370

978-89-6114-763-7 94370(전3권) 비매품

